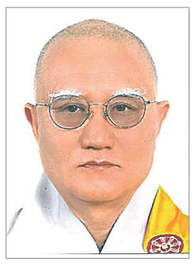
“이웃과 공덕 나누는 마음밭 일구세”

선한 마음 속에 행복의 길이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교의 가르침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계묘년 새해에는 선한 자비를 실천하여 지혜광명을 얻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집과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합시다.

희망과 지혜를 전하는 불자되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올해 계묘년은 평화와 경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의 새 날을 열 것이냐, 아니면 추락의 고통에 빠질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때 요익중생을 강조하는 불교계의 역할과 기여가 크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격변 속에서도 생명 있는 존재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생과 고통 받고 있는 현장에선 불교에서 희망을 찾고 불보살님께 의지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복덕으로 우리 국민들이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힘차게 열어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心心難可尋 심심난가심 寬是徧法界 관시변법계
窄是不用針 착시불용침 不是風動 불시풍동
不是幡動 불시번동 仁者心動 인자심동
마음 마음 하지만 가히 찾기 어렵고
넓기로 말하자면 천지에 두루하나
좁기로 말하자면 바늘 끝마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또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계묘년에는 마음의 산란함 자체가 고통이니,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지혜를 만들지 않음이 행복입니다. 업을 소멸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발원드립니다.

분별심 떠나 정진해가세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가 가고 또 다시 한해가 오는 것은 모두 사람의 기준입니다. 마음 속에 그 기준이 있으니 마음 밖에서 다른 것을 찾을 게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탐진치는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 한번 바뀌면 그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순간의 깨달음을 이어간다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새해에는 분별을 떠나 자비행에 나서는 부처의 삶을 살기를 두손 모아 합장 발원합니다.

是是非非 없는 世上을 發願하며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옛날 한 스님이 세 상좌를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두 상좌가 크게 싸우고 서로 스님에게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싸움에 진 상좌, 이긴 상좌 할 것 없이 ‘네 말이 옳다’ 하자 옆에 있던 상좌가 스님 태도가 알쏭달쏭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 대답 曰 ‘그래 네 말도 옳다’ 그 스님은 말 끝에 한편의 게송을 읊어 제자들을 깨우쳤습니다. 시시비비를 다 관계 할 것 없고/산은 산 물은 물 한가로운데 마음이 있네/극락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은들 무엇하리/흰 구름 끊어진 곳에 청산이 나타나는구나. 옳고 그른 시비를 모두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이 마음이 곧 중생심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諸佛如來是法界身 제불여래시법계신
入一切衆生心想中 입일체중생심상중
是故汝等心想佛時 시고여등상불시
是心卽是三十二相八十隨形好
시심즉시삼십이상팔십수형호
是心作佛是心是佛 시심작불시심시불 이니라.

모든 부처님은 바로 법계(法界)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바로 삼십이상과 팔십수형호를 갖춘 원만덕상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감사의 마음에 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으니 그 것이 바로 크나 큰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하루 하루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것이 날마다 좋은날입니다.
만나는 이 마다 미소 머금고 감사의 말을 하면 발 닿는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시 없을 소중한 인연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매일 매일 감사하며 살아 갑시다.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 깨달은 이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마음부터 새롭게 갈고 닦읍시다.

함께 청정한 삶으로 이끕시다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계묘년 새해는 마음으로는 참된 생각을 갖고, 몸으로는 진실한 행을 하며, 입으로는 진리의 참뜻을 전하는 불자가 됩시다.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정진해간다면 한량없는 공덕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헛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며 복덕을 쌓아 갑시다. 진정한 복은 지혜로, 탐진치에 물든 나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까지 함께 청정한 삶으로 이끕시다. 미망을 떨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비로 행복 만드는 한해 되길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 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라고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중생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 하는 이가 바로 보살이며, 수행자입니다. 속세를 떠나 있어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진 또 정진 합시다. 자비심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리입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 속에 감화되어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불자가 될 것입니다. 자비로 행복을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자비광명으로 한해가 되기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来普本行足好日 중선봉행시호일
行作惡菜常凶日 행작악엽상흉일
悉願成就多福年 실원성취다복년

착한 일을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흉한 날이 될 것이다. 바라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해가 되소서. 신구의 삼업 버리고 또 버리니 청정한 마음이네. 신년에도 탐진치 어두운 마음 헐헐 버려라. 올해도 맑은 바람 고요한 이 마음 이 모든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착 없는 마음이 바로 부처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란한 것은 우리 마음 속의 삼독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태어날 때 아무 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갈 때는 아무 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이럴진데, 어찌하여 매순간 집착하는 것입니까.
얻어도 그 자리요, 잃어도 그 자리일 뿐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전도된 현실을 깨닫고 진정한 나의 불성을 찾아갑시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저절로 진리에 닿으니 그 순간이 바로 생멸을 떠난 부처의 세계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깨닫고 탐진치를 여의는 수행의 한해를 만들어 갑시다.

마음을 하나로, 국난 극복합시다

호국불교무림종 총무원장 법승 스님



희망이 가득한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천만 불자과 국민 여러분께 지혜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길 발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단결해 온 저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이타와 대비 정신 속에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정진하며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해 갑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리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500, 6115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